

# 담화 맥락에서의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른 한국어 호칭어 선택 양상 연구

정혜선\*

## 초록

본고는 동일한 화, 청자 관계에서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어 호칭어를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선택 양상을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칭어는 한 언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함에 있어 어렵게 느끼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이지만 동일한 화, 청자 사이에서도 상황맥락에 따라 사용되는 호칭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와 같은 담화 맥락에서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른 호칭어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화자의 태도에 따라 호칭어 선택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30 명과 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전공생 30 명을 대상으로 ‘중립적’, ‘우호적’, ‘비우호적’ 상황에서의 호칭어 선택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태국인들은 태국어로 어떠한 호칭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호칭어 선택 양상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른 호칭어 선택이 광범위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호칭어 선택에 있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우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จุฬาลงกรณ์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어학부, 한국어과, 전임교수, 이메일: hyeseon.J@chula.ac.th

**주제어:** 호칭어, 사회문화적 맥락, 화자의 태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 **A Study of Korean terms of address choice in response to speaker's attitude in the discourse context**

**Hyeseon Jeong<sup>\*</sup>**

## **Abstracts**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Korean terms of address are varied according to the speaker's attitude in the same speaker/listener relationship by comparing the honorific choices of Korean mother-tongue speakers and Thai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term of address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reas for foreigners in learning Korean language because they are presupposed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a language. The term of address is an essential mechanism for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eakers and listeners. However, between the same speakers and listeners, the terms of address might be varied depending on the context. Until now, there has been a need for further research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examines the changes of terms of address due to the changes in speakers' attitudes in such discursive contex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choice of terms of address are varied according to the speaker's attitude by focusing on Korean mother-tongue speakers and Thai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this purpose, 30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30 undergraduate students who are studying Korean language in Thailand are surveyed. To determine how these target groups address names in 'neutral',

---

<sup>\*</sup> Lecturer, Korean Section, Department of Eastern Languages, Faculty of Arts, Chulalongkorn University. e-mail: hyeseon.J@chula.ac.th

'friendly', and 'unfriendly' situations. This research also aims to find out what names Thai students employ in Thai language in the same situations so that we could examine the choice of names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The study reveals that Korean mother tongue speakers' choice of terms of address are varied widely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speaker's attitude. Thai Korean language learners are different from Korean mother tongue speakers in their choice of titles, indicating that their native mother language influenced them.

**Keywords:** address form; socio-cultural context; speaker's attitude; Thai Korean language learners

## 1. 머리말

최근 OTT 플랫폼의 발전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출발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의 적절한 전달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로 호칭어<sup>1</sup>를 들 수 있다. 호칭어는 한 문화공동체의 사회 구조와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어 화자가 아닌 이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관계적 의미들을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가령, 한국어와 영어 호칭어의 대응 양상을 살펴본 윤미선(2021, p. 21)에서는 한국어의 다양하고 복잡한 호칭어 사용이 영어 더빙본에서는 주로 이름(First Name)으로 번역됨으로써 원본 대사의 다층적인 관계가 제한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호칭어란 화자가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words), 어구(phrases), 또는 표현들(expressions)을 의미하며(왕한석 외, 2005, p. 17), 각 문화권의 사회문화적인 관습에 따른 사회성과 체계성을 갖춘 대표적인 언어 기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 간의 서열, 친밀감, 거리감 등을 대변하며 사회적 상호 작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대화 상대방들 간에 어떤 호칭어가 사용되는지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들의 연령과 친근함의 정도, 서열과 직위 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칭어는 단순히 상호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태도 및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가. 자기야, 이따 11시에 만나.

나. 이민호 씨, 지금 도대체 몇 시야?

---

<sup>1</sup> 본고에서는 왕한석(2005)의 정의를 빌어, 화자가 청자와 대화를 하는 중 청자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송영(1998)에 의하면 호칭어란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말이고, 지칭어란 화자가 제 3자를 청자에게 또는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청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청자(당사자)에게 가리켜 이르는 말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호출어(calls)로 분류되기도 하는 '여기요, 저기요'와 같이 주의를 끌기 위한 목적의 표현 역시 호칭어에 포함하고자 한다.

(1)의 예는 동일한 연인 사이에서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1 가)에서 화자는 '자기야'라는 호칭어를 사용하였는데, (1 나)에서는 이름에 '씨'를 붙이는 방식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1 나)에서 가까운 사이에 사용하지 않는 격식적인 호칭어의 갑작스런 등장이 청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어 사용의 전환은 화자가 주어진 관습적 맥락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화용적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이를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간 한국어 교육에서의 호칭어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이 수반된 호칭어의 특징들, 가령 세분화된 명사형 및 친족 호칭어 사용과 2 인칭 대명사 사용의 어려움 등과 관련된 교육적 적용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또한 특정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 사이의 힘과 친소 관계에 따라 어떠한 호칭어가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호칭어 선택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재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화·청자 사이에서 실제 담화 상황에서의 미묘한 맥락 차이에 따른 호칭어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 시도는 찾기 어려우며, 특히 모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소로서의 호칭어를 조망해 보고자 한 시도 역시 미비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일한 화·청자 관계 내에서 장면이나 틀의 전환에 따라 호칭어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인 학습자의 호칭어 선택 양상을 비교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태국어에서는 동일한 장면에서 어떠한 표현이 사용되는지, 이러한 차이가 한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인 학습자는 담화 맥락에서의 화자의 태도에 따른 호칭어 선택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동일한 발화 상황에서 선택되는 태국어 호칭어는 한국어 호칭어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1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습득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모국어로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언어 부호를 바꾸어 표현하는 관점을 넘어서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칭어는 각 문화권의 사회 문화적인 관습에 따른 사회성과 체계성을 갖춘 대표적인 언어 기호이고 한국어교육에서 역시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습득의 어려움에 주목해 왔다.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박미숙, 오영훈(2015), 김유나(2022), 서진숙 외(2019), 유민애, 박형진(2022) 등이 있다. 박미숙, 오영훈(2015)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의 담화 상황에 따른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인식과 한국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지위,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른 호칭어의 전환을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재에서 배운 호칭어와 실제 담화 상황에서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교재가 아닌 실제 담화 상황을 통해 호칭어의 사용법을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유나(2022) 역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호칭어 사용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문화교육 관점에서의 호칭어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상황 맥락에서의 호칭어 선택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서진숙 외(2019)에서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집단 사이에서의 호칭어 사용 양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친밀한 사이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지만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친밀도에 따른 적절한 호칭어의 사용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유민애, 박형진(2022)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의 호칭어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는데, 친밀감이 있는 공적 장면과 친밀감이 있는 사적 장면에서 집단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친밀감이 있는 공적 장면에서 한국인은 ‘이름+ 님’을 선호하는 반면 외국인 학습자는 ‘이름+ 씨’를 격식성 있는 호칭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기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호칭어 사용에 있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 교재와의 차이에서 오는 실제성의 측면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호칭어 선택의 기제로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외에 상황적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로 화자의 감정 상태나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변인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참여자 변수 외에 상황적 변수로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포함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선택 양상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 2.2 한국어와 태국어의 호칭어 비교

한국어의 호칭어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체계로 분류가 되어 왔는데, 이익섭(199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호칭어는 크게 대명사 호칭, 성명과 직함, 친족 호칭, 기타(택호, 종자명 호칭)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박정운(1997)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호칭어의 구분

구분	예시
이름 호칭어	김용집 님, 김용집 씨, 용집아
직함 호칭어	과장님, 김용집 과장님, 김 과장(님)
친족 호칭어	어머님, 삼촌, 철호 할머니
대명사 호칭어	너, 당신, 그대



구분	예시
통칭 호칭어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학생
기타 호칭어	수원택, 짱구, 여보세요, 야
영형 호칭어	부르지 않음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태국어의 호칭어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Pawana Petprai(2012), 카위타 아난남(2016), Prasook, Pacharaporn(2019) 등의 연구를 통해 호칭어 사용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표 1>에서의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태국어의 호칭어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이름 호칭어

한국어 이름 호칭어는 이름 자체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이름에 호격 조사 '아/야'를 붙이거나 '씨/님'과 같은 접사가 따라붙는 형태로 나타난다. 보통 '아/야'가 결합된 형태는 동급이거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나타나는데 '지아야'와 같이 이름에 '아/야'가 붙게 된다. '지아 씨', '신지아 씨' 와 같이 '성+ 이름/이름'에 '씨'가 붙는 경우는 보통 대화 참여자가 성인인 경우 나타나는데 이 때 이름 앞에 성을 붙이게 되면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진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등에서 '씨' 대신 '님'을 붙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병원에서 환자를 부를 때 '신지아 님'과 같이 '성+ 이름'에 '님'을 붙여 호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생과 같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이름+ 님'으로 상대를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편, '성+ 이름'에 호격 조사나 접사가 나타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를 꾸짖는 경우와 같이 거리감이 강조되기도 한다(최경희, 2011, p. 229).

태국어의 이름 호칭어는 한국어가 '성+ 이름'의 순서를 갖는 반면 '이름+ 성'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름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름+ 성'이 함께 쓰이는 경우는 출석을 부르거나 하는 상황 등으로 한정적이다.

한국어에서 이름 뒤에 '씨'나 '님'을 붙여 청자를 높일 수 있는 것처럼 태국어에서도 의존명사 ‘คุณ’과 ‘ท่าน’을 이름 앞에 붙이면 청자를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때 ‘คุณ’은 화청자의 지위나 격식성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사용할 수 있으며, ‘ท่าน’은 보다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한편, 태국어의 별명은 두 번째 이름이라 일컬을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태국 사람들은 보통 부모가 좋아하는 것으로 별명을 별도로 짓게 되는데 바로 이 별명이 친밀함이 있는 사이에서 널리 통용된다. 따라서 이름이 불리워야 할 자리에 별명이 오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며, 친한 사이에서 상대방의 별명을 알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1) 직함/직업 호칭어

한국 사회에서 직함 호칭어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직함 호칭어는 직함을 드러내는 단어에 '님'과 같은 접사나 이름이 함께 오는 형태로 쓰이게 된다. 예를 들어 '김지은 대리님', '김 대리님', '김 대리'와 같이 '성+ 이름+ 직함+ 님', '성+ 직함+ 님', '성+ 직함' 등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직업 호칭어의 경우 직함 호칭어와 구성이 비슷하지만 '직업'을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보통 '님'과 함께 쓰인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직업을 호칭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선생',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직업명에 사용된다.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모두 직함에 이름이나 성을 붙여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한국어는 성이나 이름이 직함 앞에 붙는 반면, 태국어에서는 직함을 앞에 붙이고 이름과 성을 뒤에 붙인다. 직장에서 윗사람을 부를 때에는 '직함+ 이름', '직함+ 이름+ 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직장 내에서도 직함 호칭어를 사용하기보다 일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คุณ(존대 접두사)+ 이름’의 형태는 직위, 성별, 연령, 구분 없이 모든 관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동료를 부르는

경우에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성별 구분 없이 'พี่ (오빠, 형, 누나, 언니)+ 이름'으로 부른다. 화자보다 나이가 적으면 'น้อง(동생)+ 이름'으로 부르거나 '이름'만으로 부르기도 한다.

## (2) 친족 호칭어

한국어는 친족 호칭어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 외에도 높임이나 격식 유무에 따라 가족 관계 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빠', '아버님' 등과 같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쓰이는 것 외에도 결혼 유무, 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 화청자 간 호칭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호칭어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외에도 한국어는 '아줌마, 아저씨, 이모, 언니, 누나, 형' 등 친족 호칭어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가까운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초급 단계의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이러한 친족 호칭어의 확대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태국어의 친족 호칭어는 한국어와 유사한 점이 많아 주목할 만하다. 태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친족 호칭어가 세분화되어 있다. Cherdchai (2011, p. 13)에서는 태국어의 친족 호칭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세대, 혈연, 나이, 성별, 부모의 관계 등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에서는 제 2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별명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별명이 친족 호칭어를 대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는 친족 호칭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데 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빠'나 '언니'를 의미하는 'พี่'와 같은 표현들은 직장에서나 학교 선후배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아저씨'에 해당하는 'ลุง'이나 '아주머니'에 해당하는 'ป้า'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호칭어이다.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친족 호칭어의 접점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호칭어 습득에 있어 문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1) 대명사 호칭어

인칭 대명사는 상대방을 직관적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권에서 자주 쓰이는 호칭어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너, 자네, 당신, 자기’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2 인칭 대명사의 쓰임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너’의 경우를 보면 한국어에서 나보다 어린 청자에게 말하거나 아주 친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상대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포함하게 된다. 가령 엄마가 아이에게 ‘OO 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이를 꾸짖거나 하는 상황에서 ‘너, 숙제 다했어?’ 와 같이 호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네’는 보통 남성 화·청자 사이에 주로 쓰이며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보통 중년이 된 부부 사이에 사용되는 호칭어이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또 상대방을 향해 불평이나 불만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기’의 경우 친구나 연인 사이에 주로 쓰이며, 최근에는 여성들끼리도 자주 쓰는 대명사 호칭어이다.

태국어에는 한국어의 ‘너’에 상응하는 ‘แก’, ‘มึง’가 있는데 보통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친구 사이에 쓸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의 ‘너’처럼 청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되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แก’, ‘มึง’를 사용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เฒ่า’는 상대적으로 지위나 나이가 낮은 사람을 예우해 주면서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여성들 사이에 많이 쓰인다. 한편, 직함을 부르기에는 가깝고 이름 호칭어를 부를 만큼 가깝지 않은 경우에는 ‘คุณ’을 사용할 수 있고, ‘ท่าน’은 지위가 높은 이를 부를 때 사용한다.

## (1) 기타 호칭어

한국어에서는 관공서 등 화자와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지만 용건이 있어 누군가를 불러야 할 경우 '사장님', '선생님'과 같은 일반 명사형 호칭어가 사용된다. 이 외에도 '손님(고객님), 선배, 총각, 아가씨, 사모님' 같은 다양한 일반 호칭어가 있다. 태국어는 한국어에 비해 친족 호칭어가 훨씬 더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명사형 호칭어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였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낯선 관계를 부를 때 '여기요, 저기요, 여보세요, 있잖아요'와 같은 호출어를 호칭어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와 기능을 가진 호칭어가 없어 대조적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태국어는 다른 언어권에 비해 호칭어 체계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친족 호칭어의 발달과 친족 호칭어의 일반적인 확장은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호칭어를 습득함에 있어 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태국어의 친족 호칭어는 한국어에 비해 보다 확장적으로 쓰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국어는 별명이 이름에 버금갈 정도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어의 다양한 이름 호칭어의 쓰임과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 30 명과 태국 대학 내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3 학년

이상 학습자 30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sup>2</sup>. 본 실험에 사용된 상황 개요를 여성 화자들 간의 대화 상황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중 여성의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최종 한국어 모어 화자 28명과 태국인 30 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거주 경험이 한국어 호칭어 지칭어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홍다은, 2017)를 고려, 태국 내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의 거주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로 한정하였다.

### 3.2 설문 문항

본 연구를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황 맥락에 맞는 호칭어 선택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 사적 장면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sup>3</sup>.

우선 본 연구는 특정 대화 상황에서의 호칭어의 화용적 쓰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화 참여자 간의 상하 관계와 거리에 따라 ‘친한 회사 선배’, ‘잘 모르는 아주머니’, ‘친한 친구’, ‘친하지 않은 후배’의 네 가지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sup>4</sup>.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참여자 간 관계의 변수 외에도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른 틀 전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를 ‘중립적’, ‘우호적’, ‘비우호적’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중립적’인 상황은 단순 질문 등 상대방과의 관계 설정에 의거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배에게 지날 출장 일정을 묻는 장면, 잘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길을 묻는 장면, 친구에게 주말 계획을 묻는 장면, 후배에게 프로젝트 모임에 대해 묻는 장면을 설정하였다. ‘우호적’ 상황은 화자의 입장에서

---

<sup>2</sup> 설문 내용에 회사에서 친한 선배 관련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 바, 한국 관련 기업에서의 경험은 학습자들이 경험에 기반하여 인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설문 대상 자체를 직장에서의 근무 경험이 없는 태국과 한국 내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sup>3</sup> 호칭어 사용의 선택 기제에는 참여자 변수 외에 상황적 변수가 포함되는데 상황적 변수로는 격식성과 감정 상태 등을 들 수 있다(김은경, 2017). 본고에서는 화자의 감정 상태를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자 하므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사적 장면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sup>4</sup> 관계 설정에 있어 ‘친하지 않은 친구’와 ‘친한 후배’는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동일한 입장에서 해당 대상을 부르는 호칭 영역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청자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고마워하거나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친한 회사 선배에게 소개팅을 부탁하는 장면,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친한 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장면, 과제 내용을 설명해 준 후배에게 고마워하는 장면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우호적' 상황은 상대에 대해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비우호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선 친한 회사 선배의 경우 선배가 약속에 늦은 이유를 묻는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이 외에 길을 막고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장면, 급한 상황에 친구가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 않는 장면, 프로젝트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후배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설정하였다.

상황 개요 및 선택 가능한 호칭어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상황 개연성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거쳤으며, 호칭어 선택 기제에 따른 최종 문항의 구성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호칭어 선택 기제에 따른 상황 개요

태도	상하	거리	상황
중립적	+	+	[장소: 회사 / 상대방: 친한 회사 선배] 사무실에서 친한 회사 선배(김민정, 대리)에게 지난 주 휴가가 어땠는지 묻고 있습니다.
	+	-	[장소: 길 / 상대방: 잘 모르는 아주머니] 길에서 잘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or-	+	[장소: 학교 / 상대방: 친한 친구] 친한 친구(김은지)에게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or-	-	[장소: 학교 / 상대방: 친하지 않은 후배] 다음 프로젝트 모임 날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친하지 않은 후배(송다은)에게 가능한 날짜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호적	+	+	[장소: 카페 / 상대방: 친한 회사 선배]

태도	상하	거리	상황
			나이가 한 살 많은 친한 여자 회사 선배(김민정, 대리)와 커피를 마시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소개팅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	-	[장소: 식당 / 상대방: 식당 아주머니] 점심을 먹는 도중 식당에서 일하시는 50 대 아주머니께 반찬을 좀 더 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or-	+	[장소: 학교 / 상대방: 친한 친구] 친한 친구(김은지)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고마워서 저녁을 사려고 합니다.
	=or-	-	[장소: 학교 / 상대방: 친하지 않은 후배]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아서 과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만난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친하지 않은 후배(송다은)가 과제 내용을 설명해 줘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비우호적	+	+	[장소: 식당 / 상대방: 친한 회사 선배] 같이 일하는 친한 선배(김민정, 대리)와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30 분을 기다렸습니다. 늦게 나타난 선배에게 늦은 이유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	-	[장소: 길 / 상대방: 잘 모르는 아주머니] 급한 약속이 있어 가야 하는데 길을 막고 서 있는 50 대 아주머니에게 빨리 차를 빼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or-	+	[장소: 집 / 상대방: 친한 친구] 급하게 전할 말이 있어서 친구(김은지)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다가 5 번 만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or-	-	[장소: 학교 / 상대방: 친하지 않은 후배] 같은 과의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친하지 않은 후배(송다은)가 프로젝트를 성실히 하지 않아 화를 내려고 합니다.

<표 2>와 같은 상황 개요를 토대로 담화 완성형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를 사용하여 각각의 문항에서 주어진 대상자와 상황을 보고 어떠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태국인 학습자 5 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실험에서는 주관식 DCT 방법으로 빈 칸에 들어갈 호칭어를 직접 적어보도록 하였으나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해 공란으로 남겨 두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수정된 실험지에서는 해당 맥락에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예시 문항을 6-7 개로 제시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을 하나만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호칭어의 생략은 하나의 호칭 전략으로서 모국어 화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하여(강영, 2006; 홍다은, 2017) 개별 문항의 답변 가운데 '부르지 않음'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을 두어 주어진 객관식 항목에서 적절한 답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호칭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장소: 집 / 상대방: 친한 친구] 급하게 전할 말이 있어서 친구(김은지)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다가 5번 만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_\_\_\_\_,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① 은지야 ② 김은지 ③ 은지 ④ 은지 씨 ⑤ 야 ⑥ 친구야 ⑦부르지 않음 ⑧ 기타

#### 그림 1. 한국인 대상 설문지

한편, 태국인 대상 설문지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어진 상황 맥락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설명을 태국어 번역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호칭어를 선택해야 할 영역과 객관식으로 제시할 답변은 한국어 모어 화자 대상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태국인은 태국어로 어떻게 상대방을 부를지 태국어로 직접 쓰도록 하였다.

1) กรุณาเลือกภาษาเกาหลี 1 ข้อที่คิดว่าเหมาะสมที่สุด (다음의 상황에서 한국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찾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สถานที่ : บ้าน, คู่สนทนา : เพื่อนสนิท) เป็นสถานการณ์ที่ผู้พูดมีเรื่องเร่งด่วนต้องบอก คิม อึนจี ซึ่งเป็นเพื่อนสนิท เลยโทรศัพท์ไปหาหลายครั้ง แต่เพื่อนก็ไม่รับสาย จนสุดท้ายเพื่อนก็รับโทรศัพท์หลังจากที่โทรไป 5 ครั้ง \_\_\_\_\_ ทำไม่ไม่รับ

โทรศัพท์อะไรขนาดนี้

① 은지야 ② 김은지 ③ 은지 ④ 은지 씨 ⑤ 야 ⑥ 친구야 ⑦부르지 않음 ⑧ 기타

그림 2. 태국인 대상 설문지

##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참여자 변수와 화자의 태도라는 상황적 변수를 중심으로 사적 상황에서의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선택 양상을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설문 진행 후 각 결과 값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결과 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한편, 동일한 화, 청자 관계에서 태도의 변화에 따른 호칭어 선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참여자 변수를 기준으로 ‘친한 회사 선배’, ‘잘 모르는 아주머니’, ‘친한 친구’, ‘친하지 않은 후배’로 대상을 구분하여 해당 관계자들 사이의 발화 상황을 ‘중립적’, ‘우호적’, ‘비우호적’의 세 가지 상황으로 설정하여 결과를 기술하였다. 또한 태국인 학습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한 태국어 답변을 함께 살펴보면 문화소로서의 호칭어가 갖는 차이와 모국어의 전이 여부 등을 함께 조망해 보도록 할 것이다.

### 4.1 친한 회사 선배 (상하 + / 거리 +)

우선 두 사람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나이가 많고 거리가 가까운 친한 회사 선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회사라는 공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이에서는 직함을 통해 상대방을 호칭하는 것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호칭어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자의 태도에 따라 친한 회사 선배를 부르는 호칭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학습자의 호칭어 선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친한 회사 선배에 대한 호칭어 선택

구분	중립적		우호적		비우호적	
	한국인	태국인	한국인	태국인	한국인	태국인
선배	32.1%	40.0%	46.4%	33.3%	28.6%	36.7%
선배님	10.7%	30.0%	3.6%	10.0%	-	23.3%
언니	3.6%	13.3%	35.7%	46.7%	14.3%	23.3%
민정 언니	-	3.3%	-	10.0%	-	16.7%
대리님	35.7%	13.3%	10.7%	-	10.7%	-
김 대리님	17.9%	-	3.6%	-	-	-
부르지 않음	-	-	-	-	46.4%	-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사 선배와의 중립적인 대화 상황에 한국인은 ‘대리님’, ‘김 대리님’과 같은 직함 호칭어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친밀하다는 점에서 ‘선배’라는 호칭어를 선택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태국인 학습자들은 ‘선배’, ‘선배님’과 같은 호칭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함을 호칭어로 선택한 빈도는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좀 더 가깝게 느끼는 상황에서 화자가 개인적인 요청을 하는 우호적인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한국인들은 ‘대리님’, ‘김 대리님’과 같은 직함 호칭어 대신 ‘선배’라는 호칭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언니’가 뒤를 이었다. ‘선배’와 ‘언니’라는 호칭어를 선호하는 것은 태국인 학습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태국인들은 이때 ‘선배’보다는 ‘언니’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같이 일하는 선배에게 다소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부르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6.4%에 달했다. 반면 태국인들은 중립적인 상황이나 우호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선배’나 ‘선배님’ 또는 ‘언니’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인들은 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 상태의 변화에 따라 호칭어 사용 양상이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태국인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둘 사이의 상하 관계와 친소 관계에 의거, ‘선배’, ‘선배님’, ‘언니’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화자의 감정 태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표현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동일한 상황에서 태국어로 상대방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중립적인 상황에서는 연배가 있는 선배를 의미하는 ‘รุ่นพี่คะ’와 한국어의 ‘언니’에 해당하는 ‘พี่คะ’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언니’에 상응하는 ‘พี่ค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비우호적인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รุ่นพี่ค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태국인 학습자들은 직장에서의 가까운 선배에게 직함 호칭어 대신 ‘선배’나 ‘언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한국어 사용 상황에서도 태국어로부터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2 잘 모르는 아주머니 (상하 + / 거리 - )

다음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나이가 많고 거리가 먼 잘 모르는 아주머니를 청자로 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모’와 같은 호칭어 사용에 비교적 익숙함을 보고하고 있는데(유민애, 박형진, 2022, p. 137), 태국인 학습자에게 역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표 4

*잘 모르는 아주머니에 대한 호칭어 선택*

구분	중립적		우호적		비우호적	
	한국인	태국인	한국인	태국인	한국인	태국인
이모님	-	13.3%	17.9%	23.3%	-	20.0%
이모	-	3.3%	7.1%	3.3%	-	3.3%
사장님	-	-	50.0%	10.0%	-	-
선생님	-	-	-	-	-	6.7%
아주머니	3.6%	6.7%	-	13.3%	21.4%	13.3%
여기요	7.1%	6.7%	14.3%	-	14.3%	-
저기요	67.9%	63.3%	10.7%	50.0%	53.6%	56.7%
부르지 않음	21.4%	6.7%	-	-	10.7%	-

우선 낯선 아주머니에게 길을 묻는 상황에서 한국인은 ‘저기요’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상대방을 부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그런데 태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저기요’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한국인은 전혀 선택하지 않은 ‘이모님’이라는 호칭이 그 뒤를 이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일반명사 통칭형으로 분류되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어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태국인 학습자의 경우 ‘사장님’을 선택한 학습자는 9.5%에 그쳤으며 ‘저기요’와 ‘이모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고 잘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 한국인과 태국인 모두 ‘저기요’를 선호하였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중립적인 상황이나 우호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던 ‘아주머니’라는 표현을 선택한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으나, 태국인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인은 전혀 선택하지 않은 ‘이모님’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태국어로는 어떠한 호칭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우선 중립적인 상황에서 태국인 학습자들은 ‘실례합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ขอโทษนะคะ’나 ‘저기요’와 같이 호출어로 기능하는 ‘คุณป้าค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식당에서 반찬을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คุณป้าคะ’나 어머니의 동년배를 의미하는 ‘น้า’, ‘ป้าค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대방을 보다 가깝게 인식하여 친족 호칭어가 사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우호적인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실례합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ขอโทษนะคะ’라고 응답하였다.

표에서 보여지는 결과와 태국어 답변을 종합해 보면 나이가 많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 한국인들은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 태국인들은 ‘이모’라는 호칭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모국어에서의 쓰임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나이 많은 상대방에 대한 친족 호칭어의 확대 적용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 학습자들이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3 친한 친구 (상하 -or= / 거리 +)

한국어에서 친한 친구 사이에는 '이름+아/야'를 써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친한 친구 사이에 호칭을 할 때 '이름+씨'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러한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경향을 보일까?

표 5  
친한 친구에 대한 호칭어 선택

구분	중립적		우호적		비우호적	
	한국인	태국인	한국인	태국인	한국인	태국인
은지야	71.4%	53.3%	64.3%	70.0%	-	16.7%
은지 씨	-	-	-	-	-	-
김은지	-	-	-	-	32.1%	3.3%

은지	10.7%	-	-	-	-	6.7%
야	10.7%	40.0%	7.1%	26.7%	64.3%	73.3%
친구야	-	-	17.9%	-	-	-
부르지 않음	10.7%	6.7%	10.7%	-	3.6%	-

<표 5>를 보면 가까운 친구 사이에 화자의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한국인은 ‘이름+ 아/야’의 형태인 ‘은지야’를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태국인의 답변을 보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름+ 아/야’가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보였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인과 달리 ‘야’를 선택한 비율이 40%나 되었다.

다음으로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호적인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역시 ‘은지야’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리고 중립적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친구야’라는 호칭어를 선택한 비율이 뒤를 이었다. 태국인 학습자 역시 ‘은지야’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는데, 앞서 중립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야’를 선택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 한국인들은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일 때 잘 사용하지 않던 ‘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 이름’의 형태인 ‘김은지’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태국인들 역시 이름 대신 ‘야’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김은지’를 선택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신 ‘이름+ 아/야’로 부르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어에서는 이름과 별명이 동시에 쓰이는데 가까운 사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명이 불리운다. 따라서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상황에서 태국어로는 이름인 ‘อีณิจิ’나 별명을 부를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는 2 인칭 대명사의 ‘너’에 해당하는 ‘มึง’이나 ‘แก’ 표현을 선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비우호적인 상황에서는 ‘아니, 이 봐’에 해당하는 ‘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의 이름 호칭어 사용이 복잡한 반면, 태국어에서는 단순히 별명이나

이름을 통해 친한 친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름+아/야’, ‘야’, ‘성+ 이름’이 주는 뉘앙스의 차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4 친하지 않은 후배 (상하 -or= / 거리 - )

마지막으로 친하지 않은 후배를 부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진숙 외(2019)에서는 친밀감이 없는 사적인 상대에 대한 호칭어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 간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표 6>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표 6

친하지 않은 후배에 대한 호칭어 선택

구분	중립적		우호적		비우호적	
	한국인	태국인	한국인	태국인	한국인	태국인
다운아	-	36.7%	-	50.0%	-	60.0%
다운 씨	64.3%	56.7%	46.4%	36.7%	46.4%	13.3%
송다운 씨	-	6.7%	3.6%	-	17.9%	13.3%
다운 님	21.4%	-	21.4%	-	3.6%	-
여기요	-	-	-	-	-	-
저기요	-	-	14.3%	13.3%	21.4%	6.7%
부르지 않음	14.3%	-	14.3%	-	10.7%	6.7%

친하지 않은 후배에 대한 호칭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학습자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중립적인 상황에서 친하지 않은 후배에 대한 호칭을 보면 한국인과 태국인 모두 ‘이름+ 씨’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두 번째 선호도에 있어 한국인은 ‘이름+ 님’을, 태국인은 ‘이름+ 아/야’를 선택하였다. 특히 한국인은 잘 모르는 후배를 부를 때 ‘이름+ 아/야’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미경 외(2019)에서 대학이라는 사회 내 호칭어가 최근의 학번으로 올수록 '님'과 '씨'의 사용이 많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상황에서 역시 한국인과 태국인의 답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름+아/야'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국인 학습자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국인들은 '이름+씨' 또는 '이름+님'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친하지 않은 후배를 대할 때 한국인들은 '이름+씨' 외에 '성+이름+씨'를 통해 조금 더 거리 두기를 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저기요'라는 호칭어를 선택한 반면 태국인들은 '이름+아/야'를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동일한 상황에서 태국어 호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세 가지 상황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친한 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배를 부르는 상황에서도 별명이나 이름을 부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 외에는 후배를 가리키는 'น้อง+이름'으로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나이가 같거나 어린 사람에게 '이름+아/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이름+씨', '이름+님'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교육적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5. 나오며

호칭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대인 관계 형성 및 상호 작용에 기여하는 중요한 언어 표현으로 목표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칭어의 의미와 학습의 중요성을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한국어 호칭어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모국어의 어떠한 영향으로 호칭어 선택 양상이 달라지는지 알아 보고자 모국어 상황에서의 호칭어 선택과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는 분류 체계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친족 호칭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이름 호칭어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태국어는 이름 호칭어 사용이 단순하며 한국어와 달리 별명이 갖는 지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어에서 직함 호칭어가 발달한 것과 달리 태국어에서는 특정 직업/직함에서만 해당 호칭어가 주로 사용되고 직장 내에서도 친족 호칭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일반 통칭형 호칭어나 호출어 성격의 호칭어는 태국어에서는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하 관계와 친소 관계라는 참여자 변수와 화자의 태도라는 상황 변수에 의거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선택 양상을 확인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직장 내 친한 선배에 대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태도에 따라 직함 호칭어, 친족 호칭어, 영형 호칭어 등 호칭어의 사용이 달라진 반면 태국인 학습자들은 ‘선배’라는 호칭어를 선호하였다. 둘째, 잘 모르는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태국인 모두 ‘저기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태국인들은 중립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모님’이라는 호칭어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친한 친구에 대한 호칭어에 있어 태국인 학습자들은 ‘이름+아/야’, ‘야’, ‘성+이름’ 등 세분화된 이름 호칭어가 갖는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친하지 않은 후배에 대한 호칭어 있어서도 한국인들은 태도의 변화에 따른 호칭어 선택에 차이가 있었던 반면 태국인들은 ‘이름+아/야’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담화 맥락에서 호칭어가 갖는 의미와 학습의 어려움을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학습자 간 호칭어 선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한국어의 복잡한 호칭어 체계는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호칭어 사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방식을 벗어나 최신의 시각으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설계를 필요로 한다(윤희원, 2021, p. 2). 따라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관계적 변수를 넘어서는 다양한 상황적 변수를 고려한

호칭어 체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호칭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고는 여성 화자들 간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응답 대상을 20 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인에 따른 호칭어 사용의 현황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담화 맥락에서의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른 한국어 호칭어 선택 양상을 다룸에 있어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참여자 변인과 상황 변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강영.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비교한국학*, 14(2), 31-58.
- 김은경. (2017).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외. (2019). 대학생 간 호칭어 사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 2000년대 이후 학번을 대상으로, *반교어문연구*, 52, 119-166.
- 김유나. (2002).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사용 경험을 활용한 호칭어 교육 연구. *선청어문*, 50, 131-161.
- 김홍매, 김광수. (2022).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사용 실태 -본문 대화문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와 다문화*, 12(1), 143-167.
- 박미숙, 오영훈. (2015). 외국인 유학생이 인식하는 한국어 호칭과 문화와의 상관성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4(2), 75-91.
- 박정운. (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2), 507-527.
- 서진숙, 장미라, 박성진. (2019).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한국 대학생, 중국 유학생의 인식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6), 473-503.
- 손춘섭. (2010).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33, 95-129.

- 왕한석 외. (2005). *한국 사회와 호칭어*, 서울: 역락.
- 유민애, 박형진. (2022).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한국인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8(4), 113-142.
- 윤미선. (2021). 한국 영화 영어 더빙본의 호칭어 번역 연구. *국제어문*, 91, 7-28.
- 윤희원. (202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 (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카위타 아난납. (2016).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회 호칭어 비교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다은. (201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문화 경험에 따른 호칭어·지칭어 사용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wana Petprai. (2012).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한·태 호칭어 비교 분석과 말하기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rasook, Pacharaporn. (2019). *한국어와 태국어의 호칭어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eceived: October 11, 2023

Revised: November 7, 2023

Accepted: December 16, 2023